

수업연한 다양화와 순환형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통한 전문대학 발전 방안

김호동  
동양공업전문대학

A Prosperity Scheme of College Systems via the Diversification of Years Required for Gradu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Recurrent Vocational Education System

Kim, Ho Dong  
Dongyang Institute of Polytechnic

**Abstract** - 우리나라 전문대학은 1979년 설립당시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에 비해 질적 성장과 위상의 정립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산업 사회에 맞추어 설계된 전문대학 교육제도는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인적자원개발 기능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재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획일화된 수업연한과 계속교육체제의 미완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개혁해야만 하여야 할 시점이다. 수업연한은 다양한 전공과 사회의 수요에 맞추어 2~3년 범위안에서 다양하게 선택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단절된 학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나 시니어보케이셔널칼리지(SVC)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기본공통교육 10년 이후에 2+2(3)+2(1) +2 체제로 이어지는 순환형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되고 있다.

<표 1-1> 산업구조의 변화 (단위:%)

구분	'63	'90	'96	2000
농림어업	43.4	8.7	6.3	5.1
제조업	14.7	29.2	25.8	35.4
서비스업	36.3	38.2	40.4	40.8
기타	5.6	23.9	27.5	18.7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은행, 각연도별 「국민계정」  
주1) 실질GDP기준 각 산업별 GDP 구성임  
주2) 기타는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등임

1. 서론

1.1 교육환경의 변화

지식이 중요한 사회·경제적 가치로 평가되는 지식기반사회(knowledge based society)에서는 지식·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지식·정보의 반감기가 3.5년이며, 오늘 배운 지식과 기술로 취직을 할 때 그 지식과 기술은 5년 후면 쓸모 없게 된다는 OECD의 예측은 고교 졸업생이 사회에 진출해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대여섯 번이라도 직장(직업)을 바꾸어야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기업의 핵심 경쟁 원천이 물질 자원에서, 지식의 생산 및 활용주체인 인적자원으로 이행되고 기술변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기술 자체보다 인적자원의 역량 및 학습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양 위주의 「인력(manpower)」 개념에서 질 위주의 「인적자원(human resource)」 개념으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인적자원 투자의 생산성 증가 효과가 시설투자에 의한 효과를 능가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시설투자를 10% 증액할 경우 생산성이 3.6% 향상된 반면, 교육훈련 투자를 10% 증액할 경우 8.4%가 증가(美부통령 직업능력 정상회의, 21세기 직업능력, 1999)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토니블레어 총리는 “학습은 번영의 열쇠이며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21세기 지식기반의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의 기초”라고 역설한 바 있다.

국가적 측면에서 보면 지식·정보 위주의 신산업 구도에 부합하는 고급 인적자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국가와 기업 모두 존립이 위협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장 주도 분야가 전자, 자동차, 섬유, 철강 등 전통적 제조업에서 정보통신 등 첨단 업종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므로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IT 등 신산업으로 주력산업의 축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고급 인적자원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한편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인력구조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즉, <표 1-1>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지식·정보의 축적과 활용이 핵심인 지식집약적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고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인력이 중시되는 인력구조로의 전환이 가속화

1.2 인적자원개발 현황

IMD 국제경쟁력조사(2000년)에서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조사대상 47개국 중 27위를 기록(99년 31위)함으로써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이 고착화되어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증명하고 있다. 인적자원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현실이다. 선진 각국은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히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나 우리는 오히려 퇴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학력 실업자 누적, 하향취업, 교실붕괴, 입시경쟁, 고급인력 해외유출, 고시열풍 등 부정적 모습이 심화되고 있으며 입시경쟁, 과외열풍 등에 사회적 역량이 과도하게 소진되어 현역 인적자원에 대한 재교육 등 진짜 필요한 과제들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국가적으로는 핵심인력 양성이 부진하며, 개인적으로는 향후의 경력 비전이 불투명하다.

반도체·전자정보 등 첨단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기술인력 수요는 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질적 공급은 미흡하다. 기술의 진보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를 학교 교육이 적절히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skill mismatch, job mismatch 초래하고, 산업현장과 유리된 이론위주의 학교교육훈련으로 기업이 재교육을 부담하고, 자격증은 교육훈련·산업현장과 유리되어 있어 있는 등 교육과 노동의 연계실패에 따른 낭비가 심하다.

또한 일과 학습, 교육과 훈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계속교육기회와 생애개발경로가 제한되어 있고 대학 학과별·계열별 정원결정 등 교육훈련제도의 경직성에 따라 기술인력의 공급이 시장상황의 변화에 둔감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학력중시 풍조에 따라 인문계 선호와 대학진학 수요증가로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과 인력낭비가 초래되는 등 직업교육훈련을 기피하는 국민정서가 잔존하고 있고, 학생과 기업 등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보다는 교육훈련기관, 관계부처 등 교육공급자의 편의에 따라 운용되거나 국가의 통제로 교육훈련기관의 진입과 경쟁이 제한되고 있는 등 공급자 위주의 경쟁없는 교육훈련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3 산업기술부문 인적자원 수급전망

산업연구원 중장기 전망에 의하면 <표1-2>와 같이

전 산업 분야에서 매년 약 19만 명의 공급 초과로 2004년까지 76만 명의 인적자원 과잉양성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산업기술부문 인적자원이 제조업 부문으로 흡수·활용되지 못하여 양적·질적 수급불일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양적인 면에서는 전 부문에 걸쳐 초과공급을 나타내고 있으며, 질적인 면에서는 필요 인적자원이 항상 부족한 질적 수급과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고급인력 및 3D 업종 등의 저급 인력은 부족하고 중저급 인력은 초과공급 상태라는 것이다.

<표1-2> 산업기술부문 인적자원 수급전망(총괄)

구 분	'01	'02	'03	'04	계
수 요	67	69	71	73	280
공 급	260	260	260	260	1,040
초과공급	193	191	189	187	760

자료: 산업연구원, 「지식기반산업분야 인력수급 실태분석 및 전망과 산업기술인력 수급효율화방안 연구(2000.1)」

주1) GDP성장을 전망 : 99년 10.8%, 2000년 7.8%, 01년이하 6.2%

주2) 공급인력은 연평균임

또한 <표1-3>에 의하면 '01~'04년동안 매년 26만명에 달하는 예비 산업기술인력이 노동시장에 공급되는데 반해,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약 7만명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취업대상으로 삼은 공급인력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가는 인력(특히 여성인력)을 고려하면 수급과리의 규모는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매년 19만명의 초과공급 전망된다. 특히, 전문대학 부문에서 초과공급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매년 107천명)된다.

<표1-3> 직종별 인력수급전망 ('01~'04 연평균)

구 분	수 요	공 급	초과공급
전 문 가①	7	8	1
기술공 및 준전문가②	19	77	58
기능원 및 관련근로자③	24	131	107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④	20	44	24
계	70	260	190

자료 : 산업연구원, 앞의 책

주1) 신규인력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경력자의 공급은 포함하지 않음

주2) 안정적 경제성장을 가정 : 6~7%대

주3) 직종에 따른 학력구성 가정

① 전문가 : 이공계 박사 100%, 이공계 석사 20%

② 기술공 및 준전문가 : 이공계 석사 80%, 이공계 4년제 대졸자 80%

③ 기능원 및 관련근로자 : 이공계 4년제 대졸자 20%, 이공계 전문대졸자, 공고졸자 10%

④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공고졸자 90%

전공별 수급에 있어서도 <표1-4>와 같이 에너지·자원·원자력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급과잉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자원·원자력, 재료·화학·화학·섬유, 생물·식품·유전공학분야는 안정적 수요로서 공급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 최근 인기 있는 정보·통신·컴퓨터분야는 고급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전문대학 인력이 과잉 공급되어(약 80%) 공급초과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1-4> 전공별 인력수급전망 (2002년 기준)

전 공	수요 (A)	공급(B)	수급과리도 (A/B)	초과공급 (B-A)
에너지·자원	525	481(대316)	1.09	-44

재료·화학·섬유	7,212	9,490(대6,471)	0.76	2,278
생물·식품·유전	962	1,433(대640)	0.67	471
전기·전자·전파	13,419	28,211(대20,904)	0.48	14,792
기계·조선·항공	13,178	33,228(전21,409)	0.40	20,050
건축·토목	11,714	46,267(전29,394)	0.25	34,553
디자인	1,246	8,567(전5,609)	0.15	7,321
정보통신·컴퓨터	8,327	74,287(전58,601)	0.11	65,960
이 학	809	25,479(대17,885)	0.03	24,670
기 타	12,610	12,881(대6,679)	0.98	271
계	70,002	240,324	0.29	170,322

자료 : 산업연구원, 앞의 책

주1) ( )안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 및 인원수 : 대학 및 전문대

주2) 전공이 따로 없는 공고졸업자 49,107명은 제외

#### 1.4. 고등교육부문 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

##### 1.4.1 수급불일치 심화

경제 전체의 고용흡수력이 저하되는 과정에서 취업제수생 누적 등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대졸자 중심으로 취업제수생이 누적되고 하향취업이 확산되고 있다. 2002년에는 취업제수생이 2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바 청년실업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미래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고학력화로 인해 수급불일치가 심화되고 대졸 이상 비중이 선진국 수준이지만 필요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80년대 중반까지 인문계의 정원증가율이 공학계 증가율의 2배 이상되는 등 인문계 중심으로 대학정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졸취업자 중 인문계는 57%, 자연계는 49%가 비전공 분야에 취업한다. 학과별로도 사회적 수요와 동떨어진 전공구조가 지속되고 있는바 전자산업은 지난 15년간 8배 이상 성장했으나, 전자계열 대졸자의 배출규모는 2.6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

<표1-5> 25~64세 인구중 대졸 이상자 비중 (단위 : %)

국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한국
비중	26.6	15.4	17.7	18.6	16.6	17.0

자료 : OECD국가 교육 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00.

IT 분야는 현재 4만명이 모자라고 2005년까지 모두 18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정보통신부, IT인력 양성 5개년 계획, 2001)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통신기기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인력이 양성되고 있는데,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고성장할 것이어서 이 분야의 인력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다. 바이오산업 등 첨단분야의 고급전문인력도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기존 연구소, 기업에서만 연간 500~600명의 인력수요가 발생하는데 현재 수십명 정도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한다.

한편, <표1-6>과 같이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도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에 비해서도 뒤지는 실정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7.4%로 선진국의 50~60%에 비해 낮고, 특히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등 고급직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표1-6>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단위 : %)

항목	한국	일본	싱가포르	스웨덴	미국
경제활동참가율	47.4	48.9	51.3	58.5	60.0
전문기술직비율	31.9	44.0	42.3	-	53.4

자료 : ILO, Labor Statistics, 1999.

##### 1.4.2 인적자원의 질

인구규모 등 양적측면보다 노동력의 질적경쟁력 저하가 문제이다. IMD 조사결과 <표1-7>과 같이 '인구특성' 10위, '노동인구특성' 36위로서 인구규모, 노령화, 문맹률 등 '인구특성' 비교적 우수하나 낮은 숙련인구 비중, 우수인력 해외 유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부족 등으로 '노동인구특성'은 열악한 실정이다.

<표1-7> 인적자원의 부문별 경쟁력 비교

	인구 특성	노동인구 특성	고용	교육 구조	삶의 질	가치 태도
한국	10	36	14	33	15	21
미국	6	1	8	10	9	25
싱가포르	4	15	15	29	1	2
일본	3	24	27	27	18	28

주 : 숫자는 47개국 중 순위

자료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0.

한편, <표1-8>과 같이 노동생산성도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일본의 73%, 미국의 51% 수준이고 이것은 제조업보다 서비스부문의 격차가 더욱 크다.

<표1-8> 주요국 생산성 비교(98년 기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제조업 (한국=100)	서비스업 (한국=100)
한국	32,100	100.0	100.0
일본	43,975	103.5	163.7
미국	63,546	143.8	232.3
네덜란드	47,090	113.1	164.5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국제비교」, 2000.12

또한 비전과 기회 부재로 인적자원의 의욕 저하도 심각하다.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장기간 실업으로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실망실업자들이 증가하는바 실망실업자의 규모가 2001년 2월 현재 15만 3천명으로 실업자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IT분야의 우수인력들이 상당수 해외 유학 및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어 「고급인력의 공동화」가 우려된다. 예컨대 99년 10월~2000년 2월간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은 한국인이 1,700명에 달했으며 2001년 중에 약 8,000명으로 증가하는 등 IT업계의 경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미국, 일본 등으로 핵심인력들이 유출됨에 따라 'IT기술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미래비전 부재,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인한 해외이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민자수가 99년 1만 2,700명에서 2000년 1만 5,3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조기 유학생도 99년 3월부터 2000년 4월까지 1만 4,000여명에 달했다. 중고령 근로자들의 향후 비전이 불투명한데다 입시지옥 등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이 해외이민을 조장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 1.5. 인적자원 경쟁력 하락의 원인

인적자원 경쟁력 하락의 원인은 규제 위주의 정책, 수요·공급간 조정 실패, 공급자 위주의 교육시스템, 개인 의식의 보수성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 1.5.1 규제 위주의 인적자원 정책

정부 정책이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하향평준화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적자원 개발정책에 형평성, 국민정서 등이 개입됨에 따라 수요측면의 변화에 둔감해지고 질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유형이 과도하게 세분화 되어있어 고등교육기관별 자유경쟁을 억제하고 있다. 과거 전문학교, 초급대학 등을 전문대학으로 통합하였다가 그 이후 개방대학(1982.4), 기술대학(1997.1, 2·9교육개혁의 신대학), 기능대학(1997.12) 제도 등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현재 고등교육기관은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교육목적과 이념이 추상적이고 구분이 모호해서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산업대학은 수업연한 측면에서, 기능대학은 교육과 훈련의 차이라는 측면에서, 기술대학은 학습자의 신분의 근로자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두고 있으나,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모호해지고 근로자 뿐 아니라 전국민의 평생학습이 강조되는 등 이들 각 고등직

업교육기관들의 차별화 요소들이 불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 즉, 교육 및 노동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급격히 높아지는 반면 이에 부응하는 정부 정책은 현장과 괴리되어 있고 실행력도 약화되고 있다. 평준화 정책이 엘리트 인력과 기반인력 모두의 불만을 야기할 뿐 아니라 심각한 학력 저하를 초래하여 학력에 있어서 초중등 학생은 세계적 수준인 반면, 전문대학 이상은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상황이다.

#### 1.5.2 공급자 위주의 대학교육

대학을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동안 교육시장이 만성적 초과 수요하에서 공급자 위주로 형성되어 왔고 수요자(국가·사회, 산업계 등) 니즈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시장변화와 무관한 전공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획일적 등록금 구조하에서 교육원가가 낮은 학과의 공급이 지속되었고 이는 대졸자 취업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학재정 취약으로 교육의 내실 향상을 위한 투자가 부족하다. 즉, <표1-9>와 같이 GDP대비 대학예산의 비중이 0.5%로 OECD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학생 1인당 교육비도 OECD 평균의 70% 이하이고, 전임교수 1인당 학생 28.3명(전문대학은 78명)으로 내실있는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표1-9> 주요국 대학재정 비교 (단위 : %, 달러)

	한국	일본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OECD 평균
GDP대비 교육비	0.5	0.5	1.4	1.1	1.6	1.0
학생1인당 교육비	6,844	10,157	17,466	9,989	12,981	10,893

자료 : OECD 국가 교육 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00.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수학, 물리학 등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수학능력 저하로 면학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전공공부에 열중하기보다는 인기학과 부전공, 재입학, 편입, 고시 등 이탈이 속출하고 있다.

#### 1.5.3 수요·공급간 의사소통 및 조정 기능 미흡

인적자원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의사소통 및 조정 메커니즘이 부재하여 수급불일치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확대되고 있다. 노동시장 정보가 대학 학과 선택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등 교육과 노동시장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교육시장이 수요자 측의 요구에 둔감하며, 그나마 육성한 고급인력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취업을 한 재직자들의 재교육 기회가 부족하여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질 향상에 제약이 된다. 즉, 한국의 직업관련 성인교육 참여율(25~64세)은 5.4%로 OECD 국가중 최하위(OECD, 교육정책 보고서, 2001)이고 평생교육예산은 교육부 전체 예산의 0.01%에 불과하다.

<표1-10> 성인교육참여율(25~64세) (단위 : %)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5.4	34.0	28.0	40.0	33.0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96년 기준), 1999.

#### 1.5.4 장래비전 모호로 개인의 위험회피 성향증대

장래 비전이 모호한 청년인력들이 미래지향적·진취적 직종보다는 전통적·안정적 경력을 선호하고 있다. 미래 산업·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검증된 전통적 직종에 대한 선호가 여전하고 생산현장, 지방사업장 근무를 꺼리고 가능한 한 관리직, 서비스직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전통적 직종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인센티브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일단 자격을 획득하면 평생이 보장된다고 인식하여 법·의대 등 전통적 인기학과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 한의대의 경우 경쟁률이 50:1을 넘어서고 있고 고시응시자가 연간 4만명, 준비생을 포함하면 10만명에 이를 정도로 고시열풍이 심하다. 이 공계 박사급 인력들이 정년이 빠르고 고용이 불안정한 기업을 기피하고 기업에서 대학으로는 인력이동이 이루어지는 반면, 그 역 방향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1.6 전문대학 교육발전의 저해요소**

**1.6.1 학벌주의 국민인식**

뿌리깊은 고학력 학벌주의의 국민정서로 전문대학에 소신지원자는 11.2% 불과하다(<표1-11>참조). <표1-11> 고등학생이 선호하는 대학(표본수: 1,181명) (단위: %)

구 분	선 호 도
일류대학	15.4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35.7
거주지 근처의 4년제 대학	15.6
4년제 대학 어디든 가겠다.	4.7
전문대학이라도 가겠다.	13.4
처음부터 전문대학에 가겠다.	11.2
무응답	4.0
계	100

자료: 임연기(1998),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6.2 전문대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대우 미흡**

학력별 임금에 있어서 고졸자와 대졸자의 차이는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전문대 졸업자는 고교 졸업자에 가까운 정도가 심화되었다.

<표1-12> 학력별 임금 격차 (단위: %)

년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1980	72.7	100	145.7	217.3
1998	87.5	100	106.6	149.0

자료: 노동부(1999),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 보고서.

이는 전문대 졸업자의 능력과 자질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주로 사회적 편견에 연유한다.

**1.6.3 전문대학 교육여건 열악**

전문대학의 교수1인당 학생수, 학생1인당 교육비, 등록금환원율, 교수연구비 등으로 나타나는 교육여건은 타 교육기관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1.6.4 전문대 졸업생의 계속교육체제 미흡**

전문대학 졸업생의 전공심화와 전문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정책수행이 비효율적인 실정이다. 또한 <표1-13>처럼 전문대학 교수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없어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표1-13> 교원양성기관 현황

구 분	양 성 기 관	비 고
유치원 교사	전문대학 혹은 대학	유아교사 85%가 전문대 졸업자
초등학교 교사	교육대학	
중고등학교 교사	사범대학	
직업훈련원, 기능대학 등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동부
대학교수	대학	대학 출신자중 박사학위취득자
전문대학 교수	-	대학 출신자중 석박사학위 취득후 현장경험자

자료: 김호동(2001), 순환형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부 교육정책워크샵(2001.1.9.) 주제발표 p.7.

고교는 대학에서, 대학은 대학원에서 계속교육 담당하

나 전문대학은 단절된 학제로 고립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문대학 졸업자 계속교육 방법은 (방통·산업)대학 편입, 학점은행제(독학사과정포함) 그리고 기술대학 학사과정 등에 입학하는 길이 있다. (방통·산업)대학 편입하는 방법의 문제점은 편입문호가 좁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이 연계되어 있지 못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의 전공심화와 전문직업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다양한 전문대학의 학과(전공)를 수용하지 못할 것이다. 학점은행제에 의한 방법의 문제점은 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점을 인정받는 전공심화과정은 1년으로 학위수여요건이 되지 못할뿐아니라, 학점은행제 학사과정 표준교육과정은 고졸자를 위한 4년제 일반대학 교육과정으로 편입과 같은 문제점 내포하고 있다. 학사과정 기술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은 일단 기술대학의 설립 실적이 저조(현재 전문학사과정 1개와 학사과정 1개 대학 운영)할 뿐 아니라,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만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대기업만이 설립 가능한 실정이다.

**1.6.5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실적 저조**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은 수업연한 1년의 비학위 과정(고등교육법제49조 동시행령제58조)으로 본 과정 이수자의 공적인 학습결과 인정메카니즘이 없어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최근에 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점인정(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 제1의2항)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학습과목 평가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등 많은 규제가 존재한다.

**2. 수업연한 다양화**

**2.1 개요**

전문대학은 단기간의 고등직업교육을 받은 후에 취업을 하려는 학생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의 고등교육법에서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3년으로 규정(고등교육법제48조)하고 3년제 학과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계열 및 수·해양계열의 9개학과만이 수업연한을 3년제로 허용되어 있고(고등교육법시행령제57조), 그 이외의 학과들은 수업연한을 2년으로 제한되고 있다.

20여년전 산업사회의 터널을 통과하던 시기에 제정된 이러한 법령이 지식기반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와 고도화된 산업구조 환경 속에서 유능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에는 제대로 맞지 않는 제도적 옷입 수밖에 없다. 사회가 변화에 따라 제도도 따라 변하게 마련이라면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전문대학의 교육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업연한이 충분한가를 재검토하고 직업교육제도를 재설계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그동안 3년제 시행을 주장하였던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표2-1>과 같다.

<표2-1> 수업연한 연장에 관한 연구

연구	년 도	수업연한 연장명분	수업연한 연장방안	연장학과 (계열)	주관기 관
지용업	90	중견직업인의 역할과 계층 확대, 단순기능공 감소	3년제 개편	공업계학과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정태용	95	교육법상 직업교육 위상정립, 계속(평생, 순환) 교육체제의 구축, 학제상 모순 시정	2+2(전공심화과정), 2~3년(산업계)의 요구에 의해 학과 자율적으로 선택되도록 해당학과는 전국적으로 수업연한 통일	공장자동화와 안경광학과 유아교육과 식품영양과 전자과	교육부

김상호	95	실험실습강화, 고도 산업인력 양성, 현장실습 학기제, 교육시장개방에 대응, 전문대학교육의 위상 제고	2년6학기제(전문 학사과정), 3년9학기제(학사과정), 2~3년 자율적 선택	단일체제(2년 6학기 또는 3년 9학기), 복합체제(2~3년제 혼합), 계열별 체제 분리	한국전문대학 협의회
박한규	96	상동	2~4년미만, 다 학기제(2~3학기/년)는 자율적 선택		교육부
강인규	99	고도 산업사회, 직종별, 자격별 교육내용 차이, 상위자격 취득기회	2~3년(자율적 선택), 다학기제 병행	전자제어과 건축설비과 보건행정과 유아교육과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강성원	99	이론과 실무에 능한 인력 양성, 산업체 요구와 전공의 특성	3년 이내	충정원 유지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자료 : 김호동(2000), 전문대학 수업연한 탄력적 운영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주최 수업연한에 관한 확대간담회 주제발표, p.19.

## 2.2 전문대학 3년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 2.2.1 강인규(1999)의 조사 결과

학생들은 3년제로의 개편에 대한 결과는 찬성이 73%, 반대가 27%로 나타났으며, 교수들은 찬성 33%, 조건부 찬성 50%, 반대가 17%로 나타나 양쪽 모두 제도변화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교수들의 3년제 개편에 대한 설문 결과를 요약하면 <표 2-2> 및 <표 2-3>과 같다.

<표 2-2> 학생의견

구분	찬성	반대
의견	전문직업교육 강화(69%), 4년제 졸업생과의 격차 감소(20%), 학사학위 취득 용이(6%), 취업을 개선(3%), 기타(2%)	지식배양에 차이가 없을 것(51%), 학비 부담(18%), 조기취업 불리(15%), 추가 공부에 무관심(9%), 기타(7%)
3년제에서 강화되는 분야	실험실습(44%), 현장실습(40%), 이론과목(9%)	
취업전망	매우 좋을 것(52%), 좋을 것(9%), 같을 것(38%), 더 나쁠 것(1%)	

자료: 강인규의(1999), 전문대학 수업연한 개선과 다양화 방안. 서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표 2-3> 교수의견

구분	찬성	반대
의견	실무중심 교육 강화, 창조적 능력 개발 등 면학분위기 조성, 교양 및 인성교육 강화, 심화된 응용교육 강화, 별도의 현장 재교육 필요, 다품종 소량생산 개념하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project 학습 강화, 현장실습 강화	학령인구 감소로 전문대학의 선호도 더욱 악화, 교육비 부담 가중, 조기취업 불리, 1년 추가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개선 부정적
조건부 개편	편입학시 추가 1년에 대한 학점인정 보장, 직무분석에 의한 효과적 교육과정 개발 및 부분적 개편, 3년제 졸업자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수반, 평생교육 차원의 학점은행제 정착 및 추가 1년 학점등록보장, 산업기사 자격시험의 과목면제 및 기사시험 응시자격부여	

자료: 앞의 책

### 2.2.2 강성원(1999)의 조사 결과

교고생, 교사, 산업체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대

학 학제에 관한 연구에서도 전문대학의 문제점으로 수업연한이 짧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2년 과정에 만족하는 학생은 36.4%이나, 3년제 과정에 대한 만족은 65.1%로 나타났다. 교사들도 64.3%가 2년 과정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수업연한이 짧다'(45.6%), '교양, 상식 등 인성교육이 부족하다'(30.3%), '사회적 인식이 안 좋다'(26.7%) 등에 있었다. 3년 과정인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51.8%인데, 만족 이유는 '수업연한이 적절하다'(31.1%), '실습위주라 교육이 효율적이다'(30.1%), '교양, 상식 등 인성교육이 충분하다'(21.9%)에 있었다.

산업체에서는 신입사원 채용 시 66.4%가 2년 과정 졸업자를 채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2년 과정 졸업자를 채용하는 이유는 '실습위주라 교육이 효율적이다'(54.5%), '졸업 후 이직률이 낮다'(34.1%)등이었다. 반면 채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33.6%) 이유는 '교양, 상식 등 인성교육이 부족하다'(40.6%), '수업연한이 짧다'(31.1%), '실습위주라 이론 교육이 부족하다'(24.5%) 등이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의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만족여부에 있어서 재학기간이 중요하게 언급된 반면, 산업체의 경우는 '실습위주의 교육' 자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년 과정의 졸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실습을 통한 기술 축적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그 반면 짧은 수업연한에 지나치게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성부족과 이론교육 부족이 2년제 졸업생의 채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체에서는 3년과정 졸업자를 채용하려는(77.4%)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 그 이유는 수업연한이 적절하며(44.7%), 실습위주라서 효율적이며(43.9%), 교양, 상식 등 인성교육이 충분하다(22.8%) 등이었다.

### 2.2.3 김호동(2000)의 조사 결과

#### (1) 적절한 수업연한

수업연한을 현행대로 2년으로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단 1개 대학뿐으로 거의 모든 대학이 3년 이상의 수업연한을 선택적으로 허용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각 계열·학과에 따라 탄력적이고 유연한 수업연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창의력과 응용력 등 기술 외적 요인이 중요한 디자인 관련 학과의 경우, 현행 2년제보다 3년제 커리큘럼이 선후배 등을 통한 교과외적 교육의 습득기회가 폭넓게 작용할 뿐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교육실시가 가능, 실무적응의 시너지 효과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학생의 경우, 군입대에 따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공 심화교육에 지장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현행 교육과정보다는 3년제 교육과정이 그 효율성에 있어서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표 2-4> 적절한 수업연한

수업 연한	4년이하				3년이하				계	
	1-4	2-4	3-4	4	2	2-2.5	2-3	2.5-3		3
대학수	7	5	2	6	1	1	7	1	16	46
	20				26					

자료 : 김호동(2000), 전문대학 수업연한 탄력적 운영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주최 수업연한에 관한 확대간담회 주제발표.

#### (2) 학생정원 관리

수업연한을 연장하였을 때 학생정원관리를 충정원 유지로 하자는 대학이 14개 대학으로 30.4%, 입학정원 유지가 32개 대학으로 69.6%이다. 수업연한 연장초기에는 대학의 교육여건(학생에 대비한 대학의 시설수용)을 감안한 충정원으로 학생정원을 관리하여야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정착된 단계에서는 입학정원유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다.

#### (3) 사회적·문화적 배경요인과 국가적·교육적 명분

수업연한의 자율적 선택을 위한 명분을 요약하면 고

도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공급, 평생 교육차원의 교양교육 강화, 수요자의 선택 폭 증대 등으로 집약된다. 다음은 수업연한 연장 요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의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시대에 걸맞는 교육내용과 교육연한이 필요하나 교육연한을 2~3년의 획일화함으로써 다양한 직업분야의 교육내용을 교육연한에 맞추는 결과가 되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직업인을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가 곤란하다.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로 볼 때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2~3년으로 획일화된 수업연한으로는 다양성, 전문성이 결여되어 평생교육시대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직업교육기관이라고 하여 학문중심의 대학과 수업연한의 차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직업교육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수업연한이 정해져야 한다.

현장실무위주의 교육을 위해서는 실험·실습교육의 강화가 절실하나 수업연한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전공 학습에 필요한 실험·실습을 충분히 못함으로써 교육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이 남학생인 학과로서 재학기간 2년중 군복무기간 2년 이상을 휴학상태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므로 학업의 연속기간이 길어야 1년 6개월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더욱 교육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전문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대학 출신에 대한 산업체의 평가는 현장실무능력은 인정되나 외국어능력과 기초지식이 부족하여 이로 인해 발전성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나, 2년의 수업연한으로서는 현장실무위주의 활용기술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업연한이 짧아 교육과정상 선수과목개념을 도입할 수 없으므로 체계적인 직업교육이 불가능하다.

학력 위주의 사회에서 전문화, 지식 정보화 사회체제에 따른 전문지식 특성화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한 전문인의 요구가 사회각층에서 보다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2년제 교육기간을 전공분야에 따라 짧게는 1.5년, 길게는 3년으로 수업연한을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간호학과의 경우, 3년이라는 교육기간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효과를 꾀할 수 있는 것처럼, 타 계열·학과에서도 이러한 탄력적인 수업연한 조정을 통해 교육 수혜자와 고급인력 수요자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오래 전부터 산업현장에서는 사람은 많아도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대학을 나와도 곧바로 현장에서 쓸 수 없음을 답답해하고 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고학력, 고기술을 지닌 인력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소위 인재 풍요 속의 빈곤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회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 구조와 괴리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세계화의 가속화와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①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도덕성을 함양시키고 ②창의성을 북돋고 ③국제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은 한 직업의 전문인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유동성이 필요하며,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분야의 전산화와 정보화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의료분야의 정보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의료정보관리자의 요구도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년제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3년제로

조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

일부 학과의 경우 사회적 교육수준 요구가 많고 높아서 2년 수업과정으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국가적 교육적 명분인 '실사구시' 추구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과 특성에 맞게 다양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속도가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요구한다. 즉, 현재 산업체에서 추가교육 없이 산업체 현장 중심교육과 향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용이하도록 응용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규정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흐름과 교육환경의 글로벌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므로 학과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점차 감소일로에 있는 입학자원과 학생들의 지적수준 감퇴는 전문대학의 생존자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수업연한의 자율화(학과특성에 맞는) 및 적절한 교육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조정이 산업체나 국가 인력수급 문제에 주는 영향

대학마다 입장이 다르므로 모든 대학이 3년제로 변신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1년제, 2년제, 3년제와 같이 다양한 수업연한이 적용된 대학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일 대학 내에서도 전공에 따라서 수업연한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현재도 전문대학에서 간호과나 치위생과 같은 보건위생계열의 학과는 3년제로 구성되어 있다. 오히려 정부에서 학점은행제와 독학사제도와 같은 것을 보다 철저한 손질하고 보완해서, 기존 4년제 대학출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기회가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2년제 졸업자가 3년제에 편입하여 심화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더 공부하여 학사학위 이수도 가능하며 이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2년제 중견직업인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수업연한 조정으로 3년제 교육실시에 따라 시행원년에는 졸업생 배출문제에 따른 인력공급 단절 사태가 예상되어진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듬해부터 곧 해결될 것임으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진다. 3년제와 기존의 4년제 학부과정과의 수업연한으로의 구분이 희석되어져 전문대학의 기능 및 기술 습득교육과 4년제의 학문연구라는 특성이 보다 명료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에 따라, 사회와 현장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인력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본다.

입학정원을 유지하고 3년제로 개편하였을 때는 국가 인력 수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원래 전문대학의 설립 취지는 단기교육을 통하여 기술자와 기능공의 중간에 위치한 우수기술인을 배출하겠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나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수준저하로 전문대학 출신에 대한 처우, 인사,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냉대 등의 많은 부작용을 낳게되었다. 따라서 수업연한이 조정되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의 양성이 가능하고 1년의 준비기간이 생겨 인력수급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의료계의 추세변화에 따라 현재의 의무기록사가 의료정보관리자로 역할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3년제를 실시하여 의료계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한다. 즉, 장기적으로 오히려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2년제 졸업자의 공급부족현상이라면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로 공급부족인원을 대치할 수 있을 것이며 공급 부족현상은 단기적일 것으로 점차로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산업체 재교육시간의 단축 등은 산

업체에 주는 만족감이 더 클 것이고 어차피 학생들이 취업 후 실무에 투입되기까지 실무적용기간이 필요한 상태라 확실한 실무능력을 학교에서 무장하고 나간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환영할 것이다.

단기교육기간이 필요한 직무를 담당할 인력은 기능대학, 훈련원, 학원 및 향상교육과정의 이수자 보급으로 가능할 것이다.

#### (5) 수업연한 조정이 대학에 주는 영향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또한 수업연한 다양화에 따라 지역·분야 등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부에서 유도하는 특성화 정책이 잘 적용될 것이다.

전문대학 입학자원의 다양화로 수요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대학재정은 보다 안정화되리라 예상된다.

수업연한이 조정된다면 분야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전문대학 위상은 크게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의 직업기술을 갖춘 학생을 배출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교수와 학생 그리고 산업체가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고 기술지도 및 컨소시엄 등을 구축함으로써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학벌위주의 채용에서 기능 및 실력중심의 채용으로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3년 내지 4년으로 수업연한이 조정되면 현재의 학교 재정 대비 25%의 증가가 가능할 수 있다.

전문대와 4년제의 격차가 없어지게 되므로 신입생 모집과 등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됨이 분명하다.

전문대학 입학자 중 적성을 고려한 소신 지원자 및 우수학생 지원자 증가할 것이다.

현행 등록금체제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학재정에 다소 부담이 될 것이나 정원미달 대학의 경우는 오히려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업연한에 따라 등록금 수준도 일반 4년제 대학과 단일화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이 2~3년의 단기교육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직업교육기관으로 인식될 것이며, 대학체제가 학문연구중심의 대학과 직업교육중심의 대학으로 인식됨으로 인하여 전문대학의 사회적 위상이 제고될 것이다. 기술개발 등 실무위주의 연구활동에 전문대학 교수의 참여도가 향상될 것이고, 실질적인 능력위주의 사회분위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정착될 것이다.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수업연한이 짧은 전문대학을 선호한 학생들은 2년제를 선호할 것이고 재학생과 산업체 인력들은 재교육과 상위과정 이수를 위하여 심화과정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입시를 치르는 대안자가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일반직장인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지역적 근접성이 중시되어 최근과 같이 지방의 대학들이 학생수급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수업연한이 늘어나게 되면 입학정원을 유지하였을 때 총재학생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 대학재정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학생수급을 바탕으로 보다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교육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입시 및 대학재정에 양면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① 마이너스적 측면 : 입시자원의 유동성이 고려되는 점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이다. 단기간의 교육을 통한 빠른 사회진출을 목적으로 전문대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2년제가 아닌 3년제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 또한, 3년제 입학을 원하기 보다는 재수를 하여서라도 4년제에 입학하기를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 ② 플러스적 측면 : 대학정원이 늘어난 만큼의 대학재정이 보다 확충됨에 따른 측면에서 고려할 때, 그 플러스적 측면이 부각된다. 또한, 보다 장기간의 교육과 산학연계 프로젝트의 수요가 늘어날 것도 예상되는 바, 보다 폭넓은 재정수입 확대가 기대되어진다.

초·중급 기술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대학이 전문기술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한 교육기관으로써의 위치를 확고히 자리매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보다 수준높은 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분야뿐만 아니라 기초기술의 발전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고도의 기술교육이 4년제 대학 혹은 대학원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기초기술을 학습하고 향상시키는 활동은 전문대학이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기술도 사회적, 시대적 환경에 따라 변하게 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정착되므로써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4년제 대학과의 지식습득 경쟁력 강화로 전문대학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법정 교수요원 확보와 교육시설 확충으로 일시적 재정 투자가 요구된다. 보건계열에서는 실습기회가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대학 재정에 별다른 도움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대학입시에서는 4년제 대학에 낙방한 수험생들의 피난처라는 현재 인식에서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유능한 학생들의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단기적으로는 관점에 따라 타격을 우려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영향이 기대된다.

2003년 이후 신입생의 자연감소에 따른 재정압박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즉, 어느 정도 재정적 위기를 완충시켜줄 것이다.

#### (6) 수업연한 조정이 교육수혜자에게 주는 영향

전반적인 의견은 취업에 유리하고, 소속 대학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며 심도 있는 세부전공지식 습득이 가능하고 현장적용력이 향상되며, 학벌위주의 채용에서 기능 및 실력중심의 채용으로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전문대학 졸업생이 지닌 열등감과 소외감을 저하시킬 것이다. 예컨대 간호교육계의 심화된 문제인 4년제와 전문대 졸업자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3년 이상의 수업연한은 학사학위 취득으로 이어져 일반 4년제 대학 졸업생들과 대등한 자격으로 경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편입학을 위한 노력이 필요없으므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서 자신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다. 전문대학진학을 선택한데 대한 자긍심 제고로 대학진학의 선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분위기 조성할 수 있고 기업체 입장에서 우수한 현장실무능력 보유자의 확보가 용이하고, 신입사원에 대한 재교육부담이 경감되며, 재교육 부담 경감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므로 산업체 및 국가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된다.

4년제 출신을 선호하는 업체에서도 기능교육과 이론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진 3년제 학과 출신을 선호하는 사회적 풍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성되리라 본다. 이에 보다 원활하고 다양한 취업이 보장되리라 예상된다. 실질적인 기능과 지식의 향상이 기대되어지며, 기존의 2년제보다 급역상승 효과가 기대되어진다.

전문대학은 전문대학으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에 국한되어 있어 4년제 졸업생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편파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당연한 전문직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고 계속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자기개발이나 자기성취욕구를 실현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상당한 효과 기대, 대학교육의 정상화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산업체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며, 4년제 대학과의 격차가 해소됨으로 인해 자부심과 만족감이 향상될 것이다.

전공기초의 완전한 숙지에 따른 응용능력 강화 및 실무적용기회를 부여 받음으로서 사회(실무) 적응능력이 강화된다.

응급구조과의 경우 타 보건의료 관련학과와 동일한 수업연한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인화력을 높이고 직업적 자긍심을 갖게 해줄 것이며, 충분한 실기교육을 통해 현장적응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응급환자 처치 및 취급 시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전공관련 지식 수준의 향상으로 업무영역의 전문성이 확대되고 직업적 자질을 키울 수 있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직업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7) 교육과정개편 방안**

대개의 경우 수업연한이 연장되면 교양이나 기초직업 능력 교육의 강화, 첨단 전공과목의 심화 교육, 현장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습학기를 도입한다고 한다. 즉, 기초지식습득 및 외국어교육 강화, 철저한 선수과목제도 도입으로 교육효과 향상 도모, 실험·실습교육 강화, 현장실습학기제(1학기) 도입, 기초과목은 공통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다양한 세부전공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 제고, 졸업연구(작품) 교과 강화, 3~4학년 교육과정은 산업체 근무자를 위한 향상교육과정과 연계할 것이다.

**(8) 교수요원 확보방안**

수업연한이 늘어나는 경우는 교원확보를 기준에 맞게 교수요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겸임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

교수 자격기준은 현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자격 기준 단일화가 필요하다.

교수요원 확보방법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본다. 즉 산업체경력과 학문연구경력을 동등하게 인정하되 학과의 교수구성에서 산업체경력자와 학문 중심 연구 경력자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세부전공과정 및 향상교육과정에 산업체겸임교수(전문가초빙)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현장실습학기 운영시 교수의 산업체 연수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9) 수업연한 연장이 교수에게 주는 영향**

대개의 경우 수업연한에 따른 심도 높은 강의준비가 필요함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심도있는 전문지식의 연구활동 활성화,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활성화, 실질적인 산학협동체제 구축 분위기 활성화, 기술개발 등 실무 위주의 연구활동 활성화,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다함으로써 전문대학 교수의 위상 제고가 필연적일 것이다.

산업현장과 밀착된 교육을 통한 전문기술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의 산업기술 습득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교수들의 산업체 연수 혹은 신기술 습득 등의 다양한 기술적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요한 교수인원 확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업시수가 많아짐에 따른 부담이 발생되리라 본다. 그러나, 수업시간외적 교육(예를 들어, 4년제 대학과 같은 선후배 간의 지식 및 정보전달, 장기간의 현장실습 등)을 통한 지식/기술 습득이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시너지 효과 또한 예상되므로 실습이나 실기과목에 따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과제기간의 인관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교수요원들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4년제 대학의 이류쯤으로 인식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과 개혁방안을 통하여 무한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전문직업인들의 양성에 적극적인 사고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강의시수 부담이 있겠지만 교수확충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며, 오히려 전문대학 교수들의 안정적인 연구에 도움 기대되고, 좀더 산업현장에 근접하고 수준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을 전달할 수 있으며,

4년제 대학과의 격차해소로 만족감이 증가될 것이다.

**(10) 기타**

수업연한이 연장되는 학과나 전공별 특성에 부합되는 표준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여야 한다.

학년위주로 운영되는 수학기간을 지양하고 전문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을 갖추는데 필요한 학점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다양화됨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별의 폭을 넓혀야 한다.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조정은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 그러나 수업연한에 따른 교육기준(시설, 산학협력업체, 프로그램 개발, 운영실적, 교수진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시해서 대학의 능력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운영상의 문제로 교육이 부실해짐으로 인하여 전문대학교육 전체가 위협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2.4 동양공업전문대학(2001)의 조사결과**

**(1) 종합결과**

구분	교수	조교	직원	합계	
설문대상자수(A)	108	32	44	184	
설문참여자수(B)	96	27	36	159	
참여율[B/A×100](%)	88.9	84.4	81.8	86.4	
의견	찬성(C)	86	20	26	132
	반대	5	7	10	22
	판단유보	1	-	-	1
	찬성율[C/B×100](%)	89.6	74.1	72.2	83.0
찬성사유	직업교육수준의 질적 향상(%)	74 (48.1)	15 (41.7)	20 (54.1)	109 (48.0)
	우수한 입학자원 확보가능(%)	15 (9.7)	2 (5.6)	4 (10.8)	21 (9.3)
	전문대학의 위상 향상(%)	43 (27.9)	4 (11.1)	4 (10.8)	51 (22.5)
	학사학위 취득기회 제공으로 학력차별 완화(%)	22 (14.3)	15 (41.7)	9 (24.3)	46 (20.3)
	입학 자원 확보의 어려움(%)	3 (42.9)	1 (9.1)	3 (18.8)	7 (20.6)
반대사유	졸업생 취업의 어려움(%)	-	2 (18.2)	1 (6.3)	3 (8.8)
	3년학제의 위상 정립이 곤란함(%)	3 (42.9)	4 (36.4)	6 (37.5)	13 (38.2)
	학위에 대한 추가적 보상이 없음(%)	1 (14.3)	4 (36.4)	6 (37.5)	11 (32.4)

**(2) 기타 건의사항 주요 의견**

- 직업교육의 질적 향상은 기대되지만 졸업 후 산업체의 선호도, 2년제 출신과의 보수 및 대우의 차별화 등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함.
- 시행 초기에 입학지원을 및 취업을 감소가 우려됨.
- 철저한 3년제 교육과정 개발에 의한 실속있고 보람있는 교육이 성취되도록 하여야 함.
- 현재 학과 운영체제에 대하여 3년제 도입시 과목, 시수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최소 시수 하향 조정)
- 학교의 장기적이 계획과 함께 지속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함.
- 3년제 운영에 대한 내실있고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분명한 목표의식과 학교와 재단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이 따라야 함.
- 3년제에 적합한 시설, 설비 확보와 교수 충원이 필요.
- 3년제 졸업생의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제반 여건 확보가 필요함.(평생교육원의 교양강좌 등)
- 한 대학내에 3년제와 2년제가 공존할 경우 갈등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학과가 동시에 3년제로 전환하여야 함.
- 전면 실시 보다는 학과(부) 또는 전공별 특성에 따



라 2년제와 3년제의 다체제 운영이 바람직하며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한 후 결정하여야 함.

○ 동일 계열의 경우 같은 시기에 시행되도록 하여 학생들의 위화감을 줄여야 함.

○ 한개의 학과(부) 전체가 3년제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함. 학과(부) 단위로 관리, 운영되어야 하며, 학과(부) 내에서의 경쟁 유발은 발전이 없음.

○ 시범대학 지정을 교육부에 의뢰하는 것을 고려

○ 3년제 운영에 대한 교육부의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 기존 2년제 졸업생과의 연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등록금 인상으로 입학지원을 하라기 우려됨.(현재의 등록금으로 학교운영이 어려울 듯함.)

○ 3년제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2년제 포함)

○ 3년제 전환시 산업체 위탁생의 감소가 우려되며 대책이 필요함.

○ 현 2년제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익이 현재로선 없음.

○ 전문대학의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3년제 시행이 유일한 방안이며 시대적인 유행처럼 시행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전문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2년제를 졸업하고 사회에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1년 더 공부하였을 경우 사회에서의 인지도를 고려하여야 함.

○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및 산업체 수요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가 필요함.

○ 4년제 대학과의 차별화가 없으면 실패할 수 있음.

**(3) 3년제 여론조사 결론**

○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자 184명중 86.4%인 159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3년제 시행에 대한 교직원의 관심을 알 수 있음.

○ 설문에 참여한 159명 중 132명이 3년제 시행에 찬성하여 83.0%의 찬성율을 보임으로써 대다수의 교직원이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찬성사유로는 직업교육 수준의 질적 향상이 48.0%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학의 위상 향상(22.5%), 학사학위 취득 기회 제공으로 학력차별 완화(20.3%), 우수한 입학자원 확보 가능(9.3%) 순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3년제로 수업연한이 연장됨에 따른 교육수준 향상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반대사유로는 응답자의 38.2%가 3년 학제의 위상 정립이 곤란함을 가장 우려하였고, 학위에 대한 추가적 보상이 없음, 입학 자원 확보의 어려움, 졸업생 취업의 어려움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3년제 시행의 제도적 미숙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였음.

○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3년제 시행에 따른 교육인프라의 확충, 학교와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 장기적인 계획 수립,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음. 또한, 입시지원율과 취업을 향상, 3년제 졸업생의 사회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직원이 3년제 시행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체계적인 정책 부재와 불확실한 교육시장의 변화, 재단의 소극적인 지원 정책 등을 우려하고 있음. 따라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전 구성원이 협력함으로써 재단의 적극적 지원을 유도하여 3년제 운영으로 인한 직업교육의 완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3 전문대학 3년제 시행방안**

**2.3.1 현행지점**

**(1) 연장 대상학과**

○ 전문대학의 장이 다양한 수준의 전문직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당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과

※ 연장 대상학과 검토(예시)

- 졸업생의 국내·외 자격기준이나 직무능력 기준이 상향조정된 학과 (건축과 등)

- 4년제 대학과 구별 없이 국가자격 기준이 동일한 학과(유아교육과, 안경광학과 등)

- 기타 당해 전문대학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특성상 2년의 수업 연한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학과

※ 유아교육과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비하여 3년 연장 적극 권장

**(2) 연장 조건**

○ 수업연한 3년 연장학과는 입학정원의 1/5을 연차적으로 감축하되, 감축인원은 중간정원에서만 감축

- 연장 당해 학년도 : 입학정원 5% 감축

- 연장 2차 학년도 : 입학정원 10% 감축(연장전 입학정원의 5%)

- 연장 3차 학년도 : 입학정원 20% 감축(연장전 입학정원의 10%)

※ 감축정원 규모(비율)은 수업연한 연장으로 인한 학생수 증가에 따라 분반 운영 등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교육비용과 3학년 진학 시 탈락율, 그리고 입학자원이 감소되는 부담 등을 감안하여 1/5 수준으로 감축

※ 수업연한 연장시 입학정원 감축기준과 편제 정원 추계

<표2-5> 입학정원 1000명 기준 (단위 : 명)

학년	2001 학년도 입학 정원	수업연한 연장시 입학 및 편제정원(2001년 기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입학정원 감축기준		5%	10%	20%	20%	20%
1학년	1,000	950	900	800	800	800
2학년	1,000	1,000	950	900	800	800
3학년				950	900	800
계	2,000	1,950	1,850	2,650	2,500	2,400
편제정원 증원효과		450명(년150명(7.5%))			500명 (25%)	400명 (20%)

※ 입학정원 감축 예상인원

- 입학정원 20% 수업연한 연장시 11,061 명

- 입학정원 30% 수업연한 연장시 16,591 명

- 입학정원 40% 수업연한 연장시 22,121 명

- 입학정원 50% 수업연한 연장시 27,652 명

※ 기준 입학정원 276,515명(중전 2년제 학과의 입학정원) : 총 입학정원 294,175명 - 기존 3년제 입학정원 17,660명

○ 수업연한 연장 학과는 2002학년도의 정원 자율책정 기준으로 정한 교원확보율과 교사확보율을 충족시켜야 함

<2002학년도 정원자율책정 기준>

- 교원확보율(당해학과) : 60%(2002. 4. 1 현재)

- 교사확보율(대학전체) : 55%(2002. 3. 1 현재)

※ 2002학년도에 정원자율책정 기준 미충족시 재정지원 전면 중단 등 강력한 행·재정 제재조치 강구 계획

○ 연장 대상학과 전체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연장 운영하되, 2002학년도 연장대상학과는 2001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연장 검토

- 당해 전문대학 내에서는 동일학과를 2년제와 3년제로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나 전문대학별로는 동일학과라도 2년제와 3년제 운영 가능

**(3) 연장 절차와 방법**

○ 전문대학의 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신

청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문가들로 「수업연한연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승인하고 그 결과를 고시

**(4) 세부 추진계획**

- 2001. 5 중순 : 수업연한 연장운영 세부계획 확정 및 각 대학 통보
- 2001. 6 중순 : 신청서 접수 및 수업연한연장심의위원회 구성
- 2001. 6 하순 : 수업연한연장심의위원회 심의
- 2001. 7 중순 : 수업연한 연장대상학과 승인 및 고시

**2.3.2 전문대학 수업연한 정책 개선방안**

**(1) 대학 및 학과 자율적으로 2~3년 내에서 수업연한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필요)**

현재 지침상 교육부 장관의 인가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설립 준칙주의를 적용하여 적절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대학 혹은 학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물론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 내에서도 2년제와 3년제를 병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는 일본의 전문학교에서 그 예를 찾으려 한다. 다만 학생정원관리 문제와 교수요원 확보 문제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나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적절한 교사면적과 교원 등을 확보하면 설치인가 하면 된다. 교육과정의 경우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협의 조정하여 평가인증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수업연한을 1~4년으로 다양화하는 방안(고등교육법 개정 필요)**

이 방안은 산업대학 유형과 전문대학 유형을 통합하여 폴리테크닉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고등직업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20여년전에 전문학교, 초급대학 등을 통합하여 전문대학 제도를 만든 이후 개방대학(4년제), 기술대학(2+2년제), 기능대학(2년제) 등의 새로운 고등교육기관 유형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고등교육기관 유형을 통합할 시기가 온 것이다. 이것은 이미 산업대학이 본연의 교육목적을 상실한 채 학문중심의 일반대학을 지향하여 표류하고 있기에 오히려 필요하고 또 가능한 일이라 본다.

이러한 폴리테크닉형 고등교육기관 설립은 기존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유지 학교법인에게 같이 기회를 주면 될 것이다.

2년제 고등교육은 그 이상의 수업연한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동일한 학교내에 있을 때 오히려 가능해진다. 예컨대 4년제 대학과 같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의 M 전문대학, 성남의 K 전문대학, 인천의 I 전문대학 등이 입학지원율이 높은 것 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2.4 전문대학 2년제 학과의 3년제 연장시 유의점**

**2.4.1 3년제 학과 졸업생의 제도적 혜택**

**(1)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용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학점은행제에서 2년제 학과 졸업생은 80학점, 3년제 학과 졸업생은 120학점 인정받는다. 따라서 학사학위 취득요건인 140학점을 위하여 20학점만 추가로 취득하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수여하는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추가 20학점 취득방법은 학원 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의 평생교육훈련기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이수하거나 관련 자격증(산업기사는 최대 24학점 환산인정)을 취득하여 환산학점을 인정받으면 된다. 이때, 교양과목은 30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3년제 학과와 관련된 전공분야의 학사과정 표준교육과정이 학점은행에 고시되어 있어야 한다.

4년제 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에 편입학 하는 것보다 저비용으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므로, 대학원 진학

등과 같은 계속교육·평생교육을 통하여 학벌로 인한 불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국가기술자격 기사(1급)등급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대통령령제17115호]제11조(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 및 [별표4]의 10항에 의하여 3년제 학과 졸업(120학점 이상 이수)과 동시에 기술자격분야의 기사(1급)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3년제 학과 졸업과 동시에, 학사학위는 취득하지 못하지만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등급(1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자격과 능력의 시대에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의 활약이 기대된다.

**2.4.2 예상되는 3년제 학과의 약점과 그 대책**

**(1) 급여 등 사회적 처우**

동종 학과 2년제 졸업생에 비하여 1년의 추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급여 등 처우에 불이익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 2년제 학과 졸업생들도 전문대학 설치 초기(80년대 초반)에 고졸과 대졸 사이에서 학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약 5년 이상이 흐른 80년대 중반에는 많은 기업들이 학력인정을 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대졸 3급, 전문대졸 4급, 고졸 5급 등으로 직급을 다단계화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고등교육기관의 수업연한이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등 다양해지면서 학력에 따른 사회적 처우가 대졸과 전문대졸이라는 양분식에서 수학연한에 의한 다단계식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사 자격 취득은 물론 3년이라는 수업연한을 이수한 자로서 그에 상응한 정도 이상의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면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자에 대한 처우 등 사회적 인정이 가능하리라 본다. 역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에 해당하는 직무능력이나 기술자격을 보유했음에도 1년에 해당하는 호봉을 낮게 책정할 수 있는 3년제 전문대 졸업자가 취업에 유리하리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몇 년간 공부를 하였는가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운영을 고려할 때 4년제 대학 출신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1) [별표 4] [개정 99·10·11] 기술·기능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 야중 기타 서비스 기술자격 응시자격(제11조관련)

기사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5.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10.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1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간호·보건 계열 3년제 학과의 운영현황과 졸업생의 사회적 인지도를 참고하면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2) 중도 탈락자 발생문제

2년제 보다 3년제가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중도 탈락자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은 적절한 예상이다. 그러나 기존 2년제 졸업생 혹은 4년제 대학 중퇴자를 대상으로 한 편입학생이나 시간제 등록생을 유치함으로써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중도 탈락자 문제는 서울·수도권·대도시를 선호하는 학습자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개별 대학의 교육의 질과 교육 성과를 제고하고, 학습자의 진로(취업, 진학 및 유학 등에 의한 학위취득 등) 개척에 대한 철저한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 (3) 입학자원 확보에 대한 불안

2년제 학과보다 3년제 학과가 입학자원 확보하는 데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진학을 원하는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2년제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학생은 전국적으로 11% 정도이며, 나머지 89%는 4년제를 희망하나 4년제 진학을 못하면 전문대라도 진학하겠다고 응답하였다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문대학 입학자중에 77.6%<sup>2)</sup> 정도는 고학력을 선호하는 학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3년제 학과가 전체 입학자원의 11.2% 정도 되는 학습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38.8%가 선호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전문대학을 우선 선호하는 학생의 경우도 전문대학에서 개설한 교육프로그램의 종류와 졸업후 직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단지 수업연한이 2년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을 선호하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 그러나 지역별로 학교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2.4.3 예상되는 3년제 학과의 감점

2년제가 3년제로 연장되면 실질적인 수업기간이 증배되는 결과(신입생 신분인 1학년1학기 및 졸업준비를 위한 2학년2학기를 제외한 실질적인 수업연한 1년 → 2년)이다. 2년제 학과는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로 2년 교육과정의 연속성 부족하나 3년제의 경우 군입대 전후에 2년을 연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2년제 학과보다는 3년제 학과 입학자원의 수확능력 향상이 기대되며, 2년제 학과 보다는 3년제 학과가 전공 동아리, 학생회 등 학교생활에 있어서 선후배간 연계가 잘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년제 학과의 경우 3학년 재학생을 1~2학년 학생의 유급 TA(teaching assistant)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전문대학 교육발전 중장기 전망

### 3.1 순환형 직업교육체제 구축

#### 3.1.1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상의 규제 개혁

##### (1) 전공심화과정 수업연한 2년으로 연장

1년이내의 수업연한으로 되어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2년 이하로 하여 오랜 기간 산업체에 근무한 자의 재교육, 향상교육, 전직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일본의 전공과의 예와 같이 현행 수업연한 1년으로 다음 단계 학위와 자격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수업연한이며, 우리나라 기술대학 제도에서 보더라도 2+2 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즉, 전문대학 졸업자가 전문대학에서 개설한 전공심화과정 이수만으로 학사학위 취

득요건을 갖추면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수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 비학위과정으로 되어있는 전공심화과정을 학위과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 (2) 산업체 근무경력 입학자격 제한 삭제

전공심화과정에서 1년의 산업체 근무경력을 입학조건으로 하는 것은 산업체 특별전형이나 산업체 위탁교육 제도를 통하여 입학한 학생의 경우 이미 산업체 경력을 1년 6개월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제한이라 보여지고 산업체 근무경력이 없어도 짧은 재학기간 중 전공학습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원한다면 전공심화과정 진입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급 교육기관의 입학자격이 하급 교육기관 졸업이후의 일정한 현장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규제라고 본다. 우리 사회가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행은 어느 정도 용이하지만 일터에서 학교로의 이행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근 시행되고 있는 유무급학습휴가제가 유급학습휴가의무제로 전환된다면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가능성은 확대되리라 본다.

다만 전문대학에서도 전공심화과정 입학전형에 있어 성인학습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실시하면 곧 바로 진학하려는 학습자의 정서를, 현장 근무와 사회 경험을 통하여 학습의욕이 생기거나 계속교육이 필요할 때 진학하려는 정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본다.

### (3) 3년제 학과의 전공심화과정 1년 허용

재교육, 계속교육을 원하는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자에게도 1년 이하의 전공심화교육을 받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간호사들도 계속교육차원에서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간호전문대를 졸업한 간호사들이 외국 취업이민의 유혹을 받고있는 현실은 국부의 유출로 볼 수 있다. 현재 3년제 간호전문대학의 졸업생이 학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4년제 간호대학 3학년에 편입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차별대우가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3년제나 4년제나 같은 간호사 자격을 부여하여 직업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를 무조건 수업연한 2년의 교육을 이수한자로 간주되는 것은 학벌주의사회에서 능력과 자격 사회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사회개혁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3.1.2 SVC 제도 도입

#### (1) 개요

일본의 기술과학대학이나 우리나라 기술대학 제도처럼 전문대학 졸업자의 계속교육만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 고등교육기관을 Senior Vocational College(이하 SVC)라고 부르기로 하다. 단선형 교육체제하에서 2년제 단기고등교육이 갖고있는 계속교육기회 부재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여, 전문대학 2~3년, SVC<sup>3)</sup> 1~2년, 전문대학원 2~3년으로 이어지는 계층구조의 학제를 완성해 볼 수 있다(<그림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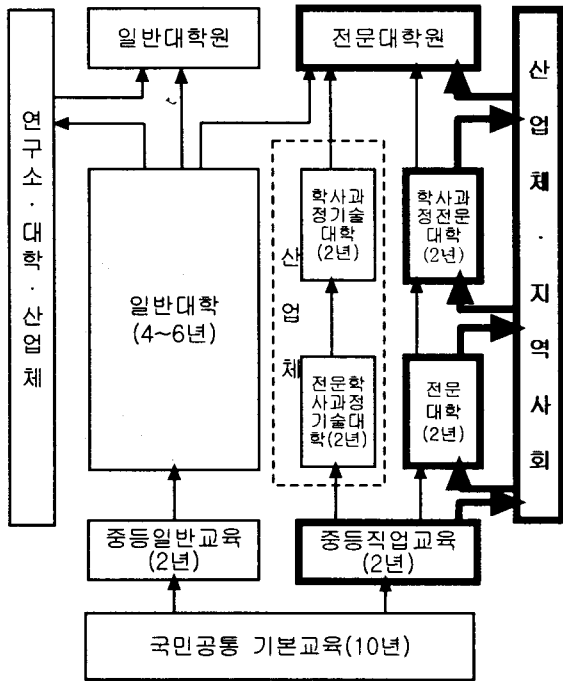
위에 언급한 3단계 고등직업교육기관은 각각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여도 되지만 인접한 단계의 2개 교육체제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설립도 가능하다고 본다. 예컨대 전문대학+SVC(2+2년제), SVC+전문대학원(2+2년제) 등의 장기 고등교육기관도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 (2) SVC 모형

3) 김호동(2000a, b, c)은 이러한 유형의 대학을 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 학사과정 전문대학, 또는 주니어칼리지(junior college)에 대응하여 시니어칼리지(senior college)라고도 부르고 있으나 시니어칼리지는 노인대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영어로는 professional college 혹은 upper-level college, undergraduate college, college of bachelor 등으로 호칭할 수 있다. 대학 유형명칭은 별도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이 1:1이라고 보고, 입학자원 50%는 4년제 대학에서 수용하고 나머지 50% 정도를 전문대학에서 수용한다면 전문대학 진학자중 4년제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해 차선책으로 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비율이 38.8/50=77.6% 정도가 됨

- 설립목적 : 전문대학 졸업자의 계속교육 제공
- 입학자격 : 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동등학력 소지자
- 수업연한 : 1년(3년제 학과 출신)~2년(2년제 학과 출신)
- 설립주체 : 전문대학·(산업)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 교육과정 : 전문대학 졸업자의 계속교육과 전공심화를 위한 직업교육과정
- 졸업학점 : 40(1년제 학과)~80학점(2년제 학과)
- 학위 : 학사학위
- 설립·운영기준 :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적용하되 기존 대학의 전환을 유도하기 경과규정 적용(수익용재산 등)
-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국가의 인력수급계획상 필요한 분야(정보기술, 생명공학, 기간산업 분야 등)를 위주로 하되 타 계열에도 점차 확대함. 기존 대학을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기존 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여 두 학교의 편제정원을 당초 인원만큼 유지하도록 함(예: 편제정원 1,000명인 기존 전문대학이 전공심화과정 대학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때는 두 대학의 편제정원을 합하여 1,000명을 넘지 않도록 함)



<그림3-1> 순환형 직업교육체제 모형

**(3) 전공심화과정 대학 제도의 기대효과**

첫째는 직업교육체제(학제)의 완성(실업계고교 2년 + 전문대학 2년 + 전공심화과정대학 2년 + 전문대학원 2년)으로 직업교육의 위상이 정립되고 각급 직업교육기관 졸업자의 계속교육 통로가 보장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고교 졸업자의 전문대학 진학에 대한 매력으로 작동하여 실업계고교 및 전문대학 입학자원의 안정적 확보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로는 직업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한 실업계고교 교사 및 전문대학 교수의 양성이 가능하다.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교사나 기능대학 교수의 양성 및 재교육기관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설립·운영되고 있고, 일본도 기술과학대학 체제를 도입하여 고등전문학교 교관을 양성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school-to-work)과 직업세계에서 학교로의 이행(work-to-school)을 원활히 하여 입직연령을 낮추고 전직 재교육이 자유로운 순환교육체제(recurrent education system)를 구축함으로써

평생·직업교육을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등 대학의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한 데 편제정원(총정원)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전공심화과정 대학을 인가하여 줄 경우 입학정원 감축 효과가 발생하고, 고졸 혹은 전문대졸 성인학습자의 유치 경쟁을 통하여 졸업후 바로 진학(고졸→대입, 또는 전문대졸→대학 편입)하려는 입시 경쟁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2 전문대학 중장기 발전의 목표지향**

**3.2.1 위상과 정체성**

**(1) 세계화 지향**

한국 대학이 오늘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개방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국내시장의 벽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질 높은 대학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폐쇄적이고 정태적인 전문대학 모형을 보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모형으로 바꾸고 교육시장의 지평을 국제사회로 넓혀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고 외국과의 교류 폭을 확대시키는 고식적인 접근을 넘어 교과내용, 교육방법, 교직원의 자질 등을 세계 대학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국제규격에 맞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전문대학 설립이념과 학풍도 민족적 배타성과 이데올로기의 제한성을 탈피하고 국제적 보편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고 전문대학 고유의 건학이념과 전통을 버려서는 안된다. 전통과 역사를 지키면서도 세계와 미래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민족교육을 중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에 치중한 나머지 외국인 상대의 국제교육을 소홀히 하는 시대착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런 관점에서 전문대학도 외국인 전임 교수와 외국 학생을 대학 공동체의 일원으로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진취적인 자세와 기타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국민 지향**

전문대학은 만민에게 열린 배움의 장(場)이 되어야 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민의 대학이 되어야 한다.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은 사회적 공공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전문대학을 전문대학인만의 배타적 공동체로만 인식한다면 국민과의 일체감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특성화**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전문대학은 교육의 질을 생각하지 않아도 존립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고도성장에 따른 산업인력수요의 급증과 국민의 교육열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 전문대학 교육에 대한 양적요구가 질적요구로 바뀌고 있는 21세기에는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는 전문대학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전문대학이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는 첩경은 전문화와 특성화를 강화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각 전문대학은 자기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고유영역과 첨단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문대학은 모집학과와 정원을 늘리는데 역점을 두어 왔고 결과적으로 어느 한 분야도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는 평균수준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오늘의 전문대학 시대에는 모든 전문대학이 각자의 특성을 살려 개성있는 이미지를 갖추어야 우수 학생을 유치할 수 있고 명성도 높일 수 있다.

**3.2.2 구조와 환경**

**(1) 사이버(cyber) 지향**

대학의 발전단계를 보면 중세의 칼리지(college)형이 18세기에는 종합대학(university)형으로, 20세기에는 복합대학(multiversity)로 발전하였으며, 21세기에는 사이버대학(cybersity)<sup>4)</sup> 개념이 일반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사이버대학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멀티미디어, 통신위성을 이용한 원격화상교육을 특징으로 함. 교육과 연구가 겹류

많은 전문대학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강좌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 대학은 사이버 인프라를 더욱 확장시켜 다수 학생들이 사이버대학의 혜택을 누리게 해야 한다.

사이버 시스템(cyber system)은 직업교육의 교육성과 사회봉사기능을 향상시키고 수익성도 증대시키며 교수들의 연구회와 직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다중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사이버 시스템은 전문대학의 산업기술교육단지화 및 벤처화를 가속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학의 캠퍼스도 사이버대학 체제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 (2) 타운(town) 지향

대학 인구의 급증과 도시화의 진척으로 대학의 공간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캠퍼스를 울타리 밖으로 넓히고 가운(gown)과 타운(town)이 협업적으로 공존하는 대학촌을 건설해야 한다.

오늘의 도시밀집화 시대에서 전문대학이 타운과 경계선을 치고 울타리안에서 공간난을 해소하려 한다면 대학 캠퍼스는 조만간 슬럼지대로 변할 지도 모른다. 조속히 캠퍼스 개념을 울타리 개념에서 타운 개념으로 바꾸고 기업 및 지역자치단체와 제휴하여 대학 주변 타운을 기존 캠퍼스의 외연으로 재개발함으로써 공간개념을 새로이 창출해야 한다.

대학촌은 카페와 디스크텍과 호프집이 즐비하게 들어서는 소비문화의 전시장이 되어서는 안되며 리서치텔과 각종 학사(學舍) 및 문화시설, 그리고 첨단 벤체산업시설이 주축을 이루는 아카데미아 타운 및 테크노피아 타운이 되어야 한다.

한편 기존 울타리 안 캠퍼스는 상아탑의 권위와 사색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테마파크 모양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 (3) 네트워크형 조직과 분권화 지향

전문대학의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조직 즉 네트워크형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이 조직의 특성은 전통적인 상하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들이 협동할 수 있게 하는 분산된 조직이다. 위계질서나 관료제를 가장 빠르게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각각의 단계들과 고립된 부서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결(links)과 접속(access)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네트워크형 조직은 끊임없이 직무(job)나 과업(project)에 따라 자체 형태를 조절할 수 있다. 전문대학 CEO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교육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결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이러한 연결과 접속을 창출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네트워크형 조직의 핵심이다. 모든 형태의 네트워크형 조직에 적용이 가능한 다섯 가지의 원칙(목적의 공유, 구성원의 독립성, 자발적 접속과 연결, 복수의 리더, 그리고 단계의 통합)이 있다.

- 목적의 공유 : 네트워크형 조직에 있어서 접착제와 발전 동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의 공유이다. 일상적 업무, 기본적인 가치와 목적들은 네트워크형 조직을 유지하고, 공동된 목적의 추구는 네트워크형 조직을 동기화하며, 전문대학의 발전체로부터의 이탈을 막아준다. 관료형 조직의 경우 목표가 부서마다 다를 수도 있었으며, 집단을 유지시키는 것은 규칙과 규제였다. 네트워크형 조직에서는 조직 목표와 공유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 집단이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유지된다.

- 구성원의 독립성 : 개인의 독립성은 조직적 상호 의존성의 선결조건이다. 각 구성원들은 타인과의 협조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라면 어디라도 자유롭게 참여하거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구성원들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나 조직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기여할 수 있을 때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발적 접속과 연결 : 개별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들과 연결(links)을 맺기 위하여 접속(access)을 시도한다. 의사소통 경로가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더욱 자주 상호 작용하게 된다. 관계들이 많아지고 발전함에 따라 구성원들의 신뢰감 역시 강화된다. 접속과 연결은 미리 설정될 수도, 강압적으로 만들어 질 수도 없는 것이며,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일반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 복수의 리더 : 네트워크형 조직에는 전통적 의미의 보스는 그리 필요하지 않다. 각 개인과 집단은 업무과정 중 어떤 순간이나 지점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과업을 수행하여 조직에 공헌할 수 있다. 한 사람 이상의 리더를 통해 네트워크형 조직은 전체적인 탄력을 갖게 되어 있다. 단지 한 사람의 지도나 지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각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시스템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목적과 자기 존경을 유발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단계의 통합 : 네트워크형 조직은 단순히 각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건의사항을 받기보다는 행동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위계질서와 '반위계질서(lower-archy)' 모두를 가지고 있다. 조직의 서로 다른 단계들에 대한 통합을 통해 네트워크는 부분의 합보다는 전체가 된다. 일부 위계질서는 네트워크 상에서도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지만, 상부와 하부의 구별이 전통적인 관료제에서만 강하지는 않다. 각 단계는 전체의 부분으로써 협력하고 작용한다.

전문대학이 발전하려면 각 부문 조직의 자율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분권화가 되면 부속기구 및 부설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각 학과나 학부도 자치의식을 갖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자 노력하는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산학협동조직이나 평생교육원 등 자생력이 있는 부서는 독립채산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생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는 대학본부에서 별도로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한가지 방법은 학부(과)장, 부속기구장, 교원인사위원회 및 예산결산자문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주는 일이다.

## 3.2.3 교육 및 연구

### (1) 실용적 연구 지향

전문대학 교육의 질은 실용적 연구성과가 판가름할 것이다. 연구성과를 높이려면 첫째 학문과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교수진과 연구진을 확보해야 하고, 둘째 연구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만족스럽게 구비해야 한다. 대학이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려면 원칙적으로 각 학과가 교수채용의 자율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정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전임교수확보율도 교수1인당 20인 이내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교수들이 연구업적을 낼 수 있도록 강의부담(책임시간)을 덜어주어야 하고(주당 9시간) 연구학기제 및 해외연수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와 보상도 연구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공평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앞서 대학은 연구기금과 출판기금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교수들의 연구 및 저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공부하는 교수가 우대 받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2) 산학연계 지향

경계가 어려울수록 기업은 산학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것이 기업도 살고 대학도 사는 길이다. 세계화시대에는 산학연계도 세계화시켜야 한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을 많이 참여시켜 연

터 및 통신 매카니즘에 의해 작동되는 대학이 사이버대학임. 우리나라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이버대학과 같은 개념의 원격교육 체제를 도입하여 2001년 현재 9개 대학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계의 대상을 세계 무대로 넓히는 것이 연구성과를 높이고 대학의 위상도 제고하는 길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협동연구에 참여하는 교수들에게 만족할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 (3) 수준별 자기주도적 교수·학습 지향

전문대학 재학생의 학습능력과 학습동기를 고려하여 수준별 교수학습과 자기주도적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직업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식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및 일 중심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일반화시켜야 한다.

### 3.2.4 대학 경영

#### (1) 등록금 의존도 축소 지향

전문대학이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고 고식적인 방법이다.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학의 지적 자산과 연구인력이 벤처기업의 창업과 운영에 직·간접으로 참여케 하는 것이 연구분위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나 대학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장점이 있다.

대학쇼핑센터(소비조합)와 대학출판사 및 평생교육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은 기업이나 정부 및 독지가가 일방적으로 도와 주기를 기다리거나 무턱대고 손만 내밀 것이 아니라 학교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재원확보 방안을 자구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재정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 (2) 고객(학생) 및 시장(산업체 등 지역사회) 지향

21세기 경쟁시대에는 전문대학이 고객을 찾아가야 한다. 고객이 캠퍼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던 종래의 권위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교육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산업체위탁 교육 등이 그러한 사례가 될 것이다.

전문대학 교육의 최고 고객은 학생이다. 따라서 대학 개혁의 일차적인 목적은 학생이 자존과 만족을 느끼는 수요자 중심의 대학을 만드는 데 두어져야 한다. 전문대학은 학생의 지적 욕구에 부합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교과과정 및 행정 지원체계를 고객 지향성으로 바꾸어야 한다. 학생이 진로선택(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교육을 강화하고, 도서관, 실험실습실, 휴식공간 등 학습환경도 학생욕구에 맞추어 확충해야 한다.

모든 행정 서비스는 one-stop 개념을 준칙으로 해야 하고 관료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이처럼 21세기 대학은 고객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강해야 좋은 대학이 될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 (3) 투명성 지향

전문대학 행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완전하여야 한다. 전문대학 행정의 투명성은 대학인들에게 학교 경영실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경영책임자의 고충을 이해케 하며 참여의욕을 북돋아 줄 것이다. 전문대학 행정이 소수의 보직자에 의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면 불신이 만연하고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며 불협화음이 증폭되기 쉬울 것이다. 전문대학 행정의 투명성을 좌우하는 관건은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신뢰성이며 모든 대학구성원들에게 예산과 결산을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 및 회계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집행을 감독케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자.

## 4. 결 론

우리나라에 전문대학 교육제도가 도입된지 20여년이 넘었다.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 그리고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전문대학은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수업

연한 등의 각종 규제를 이제는 과감히 풀고 장벽이 무너져가는 고등교육·평생교육 시장에서 자유경쟁체제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대학은 국가나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직업교육체제의 중심에 서야하고 그 체제는 순환형(recurrent) 시스템이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호동, "전문대학 수업연한 탄력적 운영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주최 수업연한에 관한 확대간담회, 2000.9.29.
- [2] 강성원, 박동열, 이길순, 오태훈, 홍익표, 김경우, 김성태,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9.
- [3] 강인구 외, "전문대학 수업연한 개선과 다양화 방안", 서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999.
- [4] 김상호, 강무섭, 김신복, 박한규, 정순영, 정태용, 조세환,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전문대학교육 체제혁신 방안연구", 서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1995.
- [5] 박한규, 김신복, 이무근, 정태용, 한인철, 김덕수, "전문대학의 산업중심대학화 발전연구", 서울: 교육부, 1996.
- [6] 정태용, 김상필, 김영환, 박홍현, 한인철, 홍순강, "전문대학교육제도발전방안연구", 서울: 교육부, 1995.
- [7] 지용업, 이무근, 김상호, 한인철, "전문대학 중장기 발전방향과 교육체제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990.
- [8] 김호동, "순환형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활성화 방안", 교육부 교육정책워크샵, 2001.1.9.
- [9] 김호동,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활성화 방안.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운영협의회 창립총회 기초강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0.5
- [10] 김호동, "전문대학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제1회 전문대학교육정책포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0.5
- [11] 동양공업전문대학, "수업연한 연장에 대한 교직원 설문조사 결과", 내부자료, 2001.6
- [12] 김은환 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긴급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1.6.
- [13] 김호진외, "21세기 대학경영과 총장의 역할", 대학의 이상과 미래, 역민사, 1998.
- [14] OECD, 국가 교육 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00.
- [15] Jessica Lipnack, "The Organization of the Future: The Network," 1995. [http://www.netage.com/TNI/Publications/Articles/article\\_solutions\\_sum95.html](http://www.netage.com/TNI/Publications/Articles/article_solutions_sum95.html)